

안전한 가정을 위한 생활습관

집안과 집주변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 특히 집안의 가구나 비치된 물품 등은 아이들에게는 무척 위험한 물건들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같이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집안을 꾸며가기 위해서는 주부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어른이 보았을 때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위험하여 추락과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1. 안전한 가정을 위한 3단계 사고발생 예방법

집안과 집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방법을 습관화하면 다칠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1단계 : 위험의 발견

가정에서 위험요소를 찾을 때는 다음과 같은 기본 사항을 토대로 한다.

-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찾는다.
- 사소하게 보이는 위험을 무시하지 않는다.
-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본다.
- 베임, 화상,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 추락, 감전, 유독성 물질, 익사, 스트레스, 정신적 상처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 다칠 위험이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진 않는가?
- 다칠 수 있는 요소가 조금만 있더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2단계 : 위험에 대한 대처방법의 결정

가족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대책이 되지 못한다. 가족 중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

위험 자체를 제거하기가 불가능하면 다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가구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가구 자체를 없앨 수 없으므로 모서리에 안전 보호대를 부착해서 다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위험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생각하고 다음 사항을 자문해 본다.

- 위험을 제거할 것인가, 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인가?
- 수리하거나 수정하거나 격리해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 어린이들에게 문제를 인지시키고 안전수칙을 지게 할 수 있는가?
-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가?

3단계 : 신속한 조치

위험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 결정되면 지체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다치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위험요소를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

특히 어린이들은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는 안전하지 못하다. 위험이 제거되거나 분리될 때 가족 모두가 편안해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2.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 추락으로부터 안전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추락하는 사고는 대부분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발생한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모두가 다칠 수 있으며 때때로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전기코드, 커튼, 장난감, 의류, 애완동물 등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어린이들이 놀이기구, 나무, 가구, 2층 침대, 베란다, 담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추락,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위험상황

- 모든 통로가 막혀 있거나 바닥에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다.
- 바닥재의 끝이 올라와 있거나 가장자리가 풀려 있다.
- 계단에는 미끄럼방지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 욕실이나 기타 젖은 곳의 바닥이 미끄럽다.
- 어린이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사다리나 기어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방치하고 있다.
- 계단에 추락을 방지할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 빗자루, 갈퀴, 진공청소기 등의 가사도구가 사용 후에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다.

※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사고의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 바닥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대체한다.
- 욕실이나 기타 젖은 곳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사용한다.
- 모든 통로는 깨끗이 치운다.
- 어린이들이 기어올라갈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치운다.
- 안전하지 않은 카펫이나 깔개는 안전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고정시킨다.
- 욕실에는 노인들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버린다.
- 계단이나 복도가 어둡지 않은지 확인한다.
- 계단과 베란다에는 어린이 보호대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 계단은 밝아야 한다. 전등 스위치가 어린이들의 손에 닿는지 확인한다.
- 의자, 탁자 및 기타 가구 등의 날카로운 모서리에는 보호대를 댈다.
- 과도한 바닥 광택은 피한다.
- 2층 침대의 보호대와 사다리의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 9세 이하의 어린이는 2층 침대의 윗층에 재우지 않는다.

3. 유독성 물질에 대한 안전

가정에서는 세제를 비롯하여 유독성이 있는 물질과 약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

가 자칫 유독성 약품 등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유독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가정에 어떤 유독물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 유독물을 조사할 때 염두해야 할 사항

- 잘 모르는 유독물이 있으면 라벨을 보고 알아둔다.
-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각종 세제, 화장품, 표백제, 원예용품, 향수, 살충제, 솔벤트연료, 약(조제약, 두통약, 비타민 등)이 위험하다.
- 각 가사용품과 라벨에는 그 제품의 유독성과 응급처치법이 표시되어 있다.
- 잘 모르거나 표시가 없는 물질의 용기는 버린다.
- 정원의 식물에도 독성이 있을 수 있고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 유독성 물질로부터 위험 제거 방법

- 불필요한 것은 모두 버린다.
- 가사용 유독성 물질을 안전한 제품으로 바꾼다.
- 오븐세제와 같은 화학약품은 1회 사용 후 나머지는 버린다.
- 유독성 물질은 어린이 보호 용기에 보관한다. 또는 잠겨지는 용기에 보관한다.
- 라벨을 읽고 지시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어린이 유독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 유독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겨진 곳에 보관한다. 사용중일 때도 뚜껑을 닫아서 높은 곳에 둔다.
- 집안에 어떤 유독성 물질이 있는지 알아본다. 유독성 인지를 알 수 없으면 용기를 살펴본다.
- 유독성 물질은 본래의 용기에 보관한다. 절대 다른 용기에 옮기지 않는다.
- 약을 사탕이라면서 아이에게 먹이지 않는다.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는 사용설명서를 주의깊게 읽는다.
- 두통약과 비타민을 방치해두지 않는다. 아이가 약인 줄 모르고 먹다가 위험할 수 있다.
- 약상자는 항상 잠궈 둔다. 수면제나 금연약 등을 서랍이나 탁자 위에 방치하지 않는다.

자료제공 : (사)한국안전생활교육회/www.childsafety.or.kr